

- **적극적인 재정운용 속에 재정지표 개선**
- **국가채무는 단순 금액보다 관리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비중이 중요**

### <보도내용>

- 연합뉴스, 헤럴드경제, 조선일보 등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“작년 국가채무 1천300조, 1년새 130조 '경충'... GDP 대비 46→49%”(연합뉴스)

“나랏빚 1304조 ‘또 최대’...국민 1인당 2500만원 ‘빚 부담’ 커졌다”(헤럴드경제)

“나랏빚 1304조 ‘역대 최대’... 나라살림 적자는 2년 연속 100조 넘어”(조선일보)

### <관계부처 입장>

- 지난해 정부는 내수 위축과 통상 환경 급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AI·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내수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.
-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(전년대비 +129.4조원)했으나, GDP 비율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당초 계획(49.1%) 대비  $\Delta 0.1\text{p}$  감소하였습니다.
  - \* 국가채무(조원) : ('24) 1,175.0 → ('25예산) 1,301.9 → ('25결산) 1,304.5
- 한편, 국가채무는 단순 금액 증가보다 경제 규모 확대, 총지출 증가와 연계하여,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.
- 2025회계연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.0%로, '25~'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'25년 목표 49.1% 수준 이내입니다.

**< 국가채무 전망('25~'29 국가재정운용계획) >**

(조원, %)	'25년		'26년	'27년	'28년	'29년
	본예산	2회추경				
■ 국가채무 (GDP대비, %)	1,273.3 (48.1)	1,301.9 (49.1)	1,413.8 (51.6)	1,532.5 (53.8)	1,664.3 (56.2)	1,788.9 (58.0)

- 또한, 1인당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나 상환능력 고려 없이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서, 인구가 많은 국가에게 유리한 통계적 착시를 유발,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통계입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,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, 이를 토대로 세입기반을 확충,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여력 확보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- 아울러, 이러한 과정에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, 비과세·감면 정비 등 조세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회계결산과	책임자	과 장	이기훈 (044-215-5430)
		담당자	사무관	민희경 (mhk0307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민 (sm718@korea.kr)
	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호 (shinjiho7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박소정 (sojung873@korea.kr)